

IV. 經濟 關聯 社說 抄錄

■ IMF 이후의 과제

IMF지원을 우리경제의 선진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IMF 이행조건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주체들간 합리적 고통분담이 필요하다

- IMF지원, 우리경제의 구조조정과 체질강화 계기로
 - 실리적이고 신중한 접근자세 요망
 - IMF 지원방식이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협상력 발휘
 - 투자 위축, 고용 불안, 내수 부진 등 실물경제에의 영향 파악
 - 경제주체들간 합리적 고통분담의 유도
 - 정부는 행정규제 혁파와 행정기구의 과감한 축소를 추진
 - 기업들은 차입경영과 외형경쟁 대신 수익제고와 기술 및 인력 확보에 의한 경쟁력제고를 위해 노력
 - 국민들도 과소비 행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임
- (「매일경제신문」, 97. 11. 24)

■ 삼성그룹의 생존전략

대내외적 사업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IMF체제에서 생존하려면 강력한 자구노력이 필수적임. 최근 삼성그룹이 발표한 대대적인 감량경영계획은 이러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판단됨

- 우리 경제, 성장이 아닌 생존을 위한 결단 필요
 - IMF 관리하에서 자구노력 없이는 도산이 불가피
 - 삼성그룹 34개 한계기업 포기, 조직의 30% 축소, 투자의 30% 이상 감축 등 감량경영계획 발표
 - 대내적으로 한동안 자금난 심화로 고금리, 실업 증대, 내수 침체 등 사업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임
 - 대외적인 생존 조건도 더욱 어려워질 것임
 - 반도체, 자동차, 조선, 철강, 유화 등 경쟁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집중적인 견제 강화가 예상
 - 이들 주력산업은 향후 자금조달과 투자에 상당한 곤란에 직면할 것임

(「매일경제신문」, 97. 11. 28)

IMF 조기극복을 위해서는 지원조건 이행에서 최소희생으로 위기국면 타개를 위한 정부 노력이 절실

■ 난제 많은 IMF 조건 이행

- IMF 조기 극복을 위한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중요
 - IMF 구제금융의 이행 조건
 - 부실 금융기관의 조기 정리, 성장률 대폭인하, 재정긴축 및 경상수지 적자축소 등이 골자
 - 최소 희생으로 조기 극복에 노력 집중이 중요
 - 경제주체들은 고통을 감내하려는 의지를 보다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
 -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 처리가 경제의 희생불능 사태를 야기하지 않도록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해야 함
- (「한국경제신문」, 97. 12. 1)

대우의 쌍용자동차 인수는 과잉 설비 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자동차업계는 물론 조선, 반도체, 유화, 특수강 등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

■ 수술대 오른 자동차 산업

- 대우의 쌍용자동차 인수는 산업구조조정의 신호탄
 - IMF 관리체제 이후 핵심업종에서 최초의 인수합병
 - 국내 자동차산업은 생산설비 과잉과 이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
 - 아울러 최근 내수침체, 수출부진, 수입선 다변화 폐지 등 시황악화는 구조조정의 불을 당기고 있음
 - 산업구조조정의 가속화 전망
 - 구조조정은 과잉 설비투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, 반도체, 석유화학, 특수강 등으로 확산될 것임
 - 업계간 자율적 인수합병 무산시 금융기관이 개입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
- (「동아일보」, 97. 12. 8)